

전북 인구감소지역 체류인구의 이동 특성에 따른 정책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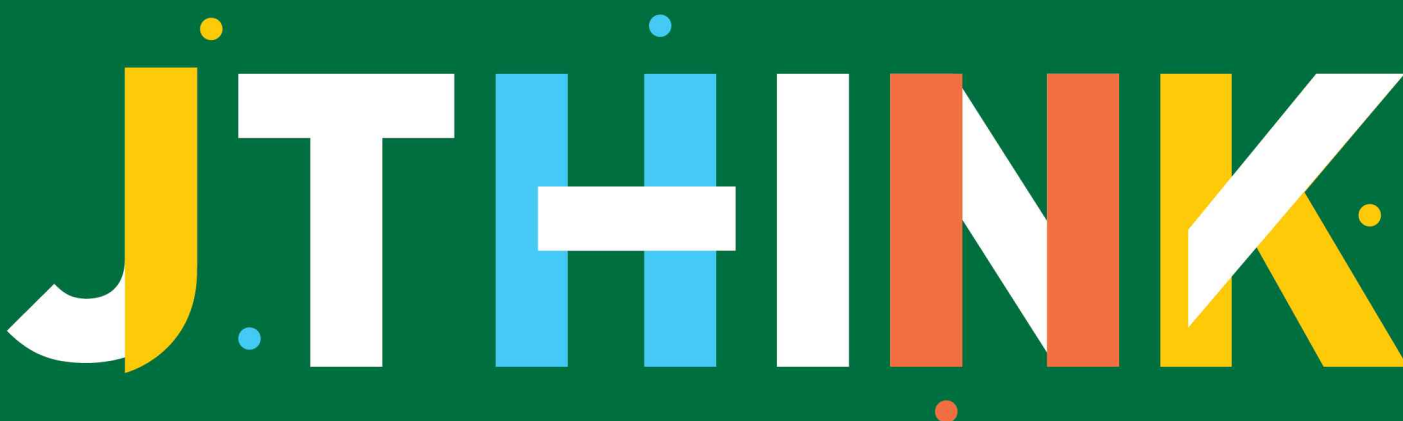
연구책임

이성재 선임연구위원

이지선 연구위원

연구진

천지은 연구위원



이슈브리핑 요약

정주인구 중심 인구정책의 한계와 생활인구의 부상

- 인구감소와 수도권 집중이 지속되면서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생활인구가 지역 활력의 새로운 핵심 지표로 부상
- 특히 체류인구는 정책적 개입을 통해 유입 확대가 가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접 기여하는 핵심 자원

전북 인구감소지역 체류인구 특성

- 전북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중 체류인구 비중은 80.6%로 체류인구가 생활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전국 인구감소지역 평균 체류인구 비중 81.9%보다는 낮은 수준
- 체류인구지수(체류인구/주민등록인구)가 높은 지역은 무주군, 임실군, 부안군 등이며, 낮은 지역은 김제시, 정읍시 등이며, 시군간 편차가 크게 발생
- 유출입지수(유입인구/유출인구)가 높은 지역은 무주군, 부안군, 임실군 등으로 외부 인구유입 경쟁력이 우수한 반면, 낮은 지역은 정읍시, 김제시 등으로 유입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미흡
- 체류인구의 도내외 유입경로 분석 결과 생활권 중심형, 도내 의존형, 광역 유입형으로 구분
 - 생활권 중심형(김제시) : 체류인구 규모는 크지만 전북 내 유입 비중 93.4%
 - 도내 의존형(정읍시, 진안군, 장수군, 임실군, 부안군) : 전북 내 유입 비중 72%~86%
 - 광역 유입형(남원시, 무주군, 순창군, 고창군) : 전북 외 유입 비중 35%~54%
- 체류인구의 계절성 특성은 대부분 지역에서 2월에 가장 적고 가을철 및 관광수기에 집중
 - 계절 변동성[(체류인구가 가장 많은 월-가장 적은 월)/가장 적은 월이 가장 낮은 지역은 김제시(113%)로 연중 안정적인 체류인구 분포를 보인 반면, 계절적 편차가 커 특정 시기 의존도가 높은 지역은 임실군(358%), 순창군(278%), 무주군(276%)

체류인구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 체류인구 취약지역(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장수군) : 도내외 체류인구 유입 확대
 - 목적형 방문수요 창출(스포츠·메디컬, 지리산 웰니스, 농생명·경관, 고운 레저·교육 등), 체류 기반 리워드 프로그램 운영, 액티브 관계인구 구축 및 활용 등
- 광역 유입형(남원시, 무주군, 순창군, 고창군) : 재방문과 장기체류 유도
 - 체류형 거점 인프라 구축, 충청권·광주전남권 등과 연계형 관광 상품 개발 및 맞춤형 마케팅 강화
- 도내 의존형 및 생활권 중심형(정읍시, 김제시, 진안군, 장수군, 임실군, 부안군) : 전주권 및 인근 거점 도시와 의연계 강화 및 도외 체류인구 방문수요 창출
 - 야간·주말 로컬경제 활성화(지역예술인 야간 콘서트, 청년 플리마켓, 주말 스포츠 대회 등), 지역 거점 명소화 등
- 계절 편중 심화 지역(무주군, 임실군, 순창군 등) : 계절적 편차 축소로 체류인구의 연중 분산
 - 비수기 특화 축제 및 이벤트, 사계절 체류공간(자연친화형 야외활동+타깃형 체험·휴양활동 조성, 시즌별 타깃 마케팅 등
- 실증 데이터 기반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추진
 - 공간 단위를 읍면동으로 세분화 및 주요 관광지별 빅데이터 모니터링 체계 구축, 시군간 협력 네트워크 확대, 체류시간, 소비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 설계

I. 왜 지금, 생활인구에 주목해야 하는가?

정주인구 확대의 한계와 생활인구로의 패러다임 전환

- 지난 수십 년간 추진해 온 정주인구(주민등록인구) 유치 중심의 인구 정책은 지자체 간 인구를 뺏고 빼앗는 소모적인 제로섬 게임으로 전락하며 한계 노출
 - 그 결과 대한민국 인구는 자연 감소와 수도권으로의 유출이라는 이중고 속에 지방소멸 위기 가속화
 - 인구감소 추세가 구조적으로 고착화되면서 **정주인구 확대만으로는 지역 활력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 확산**
- 물리적인 거주지에 국한되지 않고, 특정 지역에 머물며 활력을 불어넣는 생활인구로 정책적 패러다임 전환 가속화
 - 특히 주민등록인구의 급격한 증가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지역을 실제로 방문하고 체류하며 소비·활동하는 인구를 의미하는 '**생활인구**' 확대가 **지역정책의 핵심 목표로 부상**
 - *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뿐만 아니라 통근·통학, 관광, 업무, 여가 등의 목적으로 지역을 방문하는 체류인구와 외국인을 포함함으로써 지역의 실질적인 이용 규모와 활력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

생활인구 시대, 왜 체류인구가 핵심인가?

- 생활인구(주민등록인구+체류인구+외국인인구) 중 인구감소지역의 **경제활동과 서비스 수요를 창출하는 핵심 대상으로 체류인구의 중요성 증대**
 - 주민등록인구는 단기간 내 변화가 제한적이고 외국인 인구 또한 지역 차원의 정책 개입 여지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반면, 체류인구는 관광·문화·축제·산업·교통·생활SOC 정책 등을 통해 유입 확대가 가능한 정책 대상
 - **체류인구**는 지역의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하는 **직접적인 경제 주체**일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고향사랑기부제, 관계인구 형성, 나아가 **정주인구 유입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
- 현재의 생활인구 분석은 지역별 규모 파악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으며, 체류인구가 실제로 얼마나, 언제, 어디에서, 유입되는지에 대한 분석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
- 인구 감소가 곧 지역 경제의 쇠퇴로 직결되지 않으려면, **체류인구의 규모, 시기, 이동 경로 등에 대한 분석 필요**

시·군별 체류인구 특성 진단과 실증 데이터 기반 정책 발굴

- 체류인구는 관광형 체류, 통근·통학 기반 관계형 체류 등의 수요와 재방문을 등 체류인구의 속성이 전북 내 인구감소지역 10개 시·군별로 상이
- 체류인구 분석의 공간 단위를 시군 단위로 세분화하고, 주요 특징을 지역별로 분석해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의 지역 맞춤형 추진과 실효성 제고 필요
- 본 이슈브리핑은 전북 인구감소지역의 체류인구 규모, 시기, 이동경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시군별 생활인구 특성을 진단하고 체류인구 기반의 지역활력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II. 전북 인구감소지역 체류인구의 규모와 유입 경쟁력은?

1. 전북 생활인구 및 체류인구

생활인구 규모

- 2025년 전북(인구감소지역 10개 시군)의 평균 생활인구는 전국(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 평균의 약 84.2% 수준
 - 2025년 전국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의 평균은 3,618,335명, 전북은 3,045,859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역은 정읍시, 부안군, 남원시, 김제시, 고창군 등 5개 시군

〈시군별 생활인구 규모〉

단위 : 명

구분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계	4,443,767	4,086,280	3,992,388	2,032,383	2,792,914	1,157,465	2,342,905	1,840,928	3,676,313	4,093,247
주민등록인구	1,214,630	899,243	976,474	290,595	274,767	246,079	304,642	323,463	607,719	570,893
체류인구	3,187,872	3,166,485	2,974,474	1,733,050	2,510,195	904,320	2,032,155	1,510,645	3,038,916	3,505,688
외국인	41,265	20,552	41,440	8,738	7,952	7,066	6,108	6,820	29,678	16,666

출처 : 국가데이터처 자료 재정리

주 : 주민등록인구(행안부), 체류인구(SKT, KT, LGU*), 외국인(법무부)

체류인구 비중

- 2025년 전북 인구감소지역의 평균 체류인구는 전국 인구감소지역 평균의 약 82.9% 수준
 - 2025년 전국 인구감소지역 체류인구의 평균은 2,963,626명, 전북은 2,963,626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역은 부안군, 정읍시, 남원시, 고창군, 김제시 등 5개 시군
- 전북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중 체류인구의 평균 비중은 80.6%, 전국 인구감소지역의 평균 비중은 81.9%
- 전북 인구감소지역 내 체류인구 비중이 높은 시군은 무주군, 임실군, 부안군, 진안군, 고창군, 순창군 순

〈시군별 체류인구 비중〉



출처 : 국가데이터처 자료 재정리

2. 체류인구지수

- 주민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체류인구지수** 값은 **전국은 4.7인 반면, 전북은 4.3**

* 체류인구지수 : 체류인구/주민등록인구 (주민등록인구 1명당 해당 지역에 실제로 머무르는 체류인구가 몇 명인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지표값이 높을수록 외부 방문객, 관광객 등의 유입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의미)

- 체류인구지수가 전국 및 전북 평균보다 높은 지역은 무주군 등 6개 군이며, 낮은 지역은 장수군과 3개 시 지역

- **평균 상회 지역** : 무주군(9.1), 임실군(6.7), 부안군(6.1), 진안군(6.0), 고창군(5.0), 순창군(4.7) 순으로 관광, 휴양, 자연자원 기반 방문 수요가 발생하고 있어 체류인구의 지속화 전략 필요

- **평균 하회 지역** : 장수군(3.7), 남원시(3.5), 김제시(3.0), 정읍시(2.6) 순으로 체류인구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필요

- 무주군의 체류인구는 주민등록인구의 약 9배 규모인 반면, 정읍시, 김제시, 남원시는 주민등록인구 규모는 크지만 체류인구 유입은 상대적으로 작아 **시군간 편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어 평균 하회 지역의 경우 체류형 거점, 농촌체험, 체류시간 확대 등의 정책 필요

〈시군별 체류인구지수〉

구분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월 평균 체류인구(a)	265,656	263,874	247,873	144,421	209,183	75,360	169,346	125,887	253,243	292,141
월 평균 주민등록인구(b)	101,219	74,937	81,373	24,216	22,897	20,507	25,387	26,955	50,643	47,574
체류인구지수(a/b)	2.6	3.5	3.0	6.0	9.1	3.7	6.7	4.7	5.0	6.1

출처 : 국가데이터처 자료 재정리

〈시군별 체류인구 지수〉



출처 : 국가데이터처 자료 재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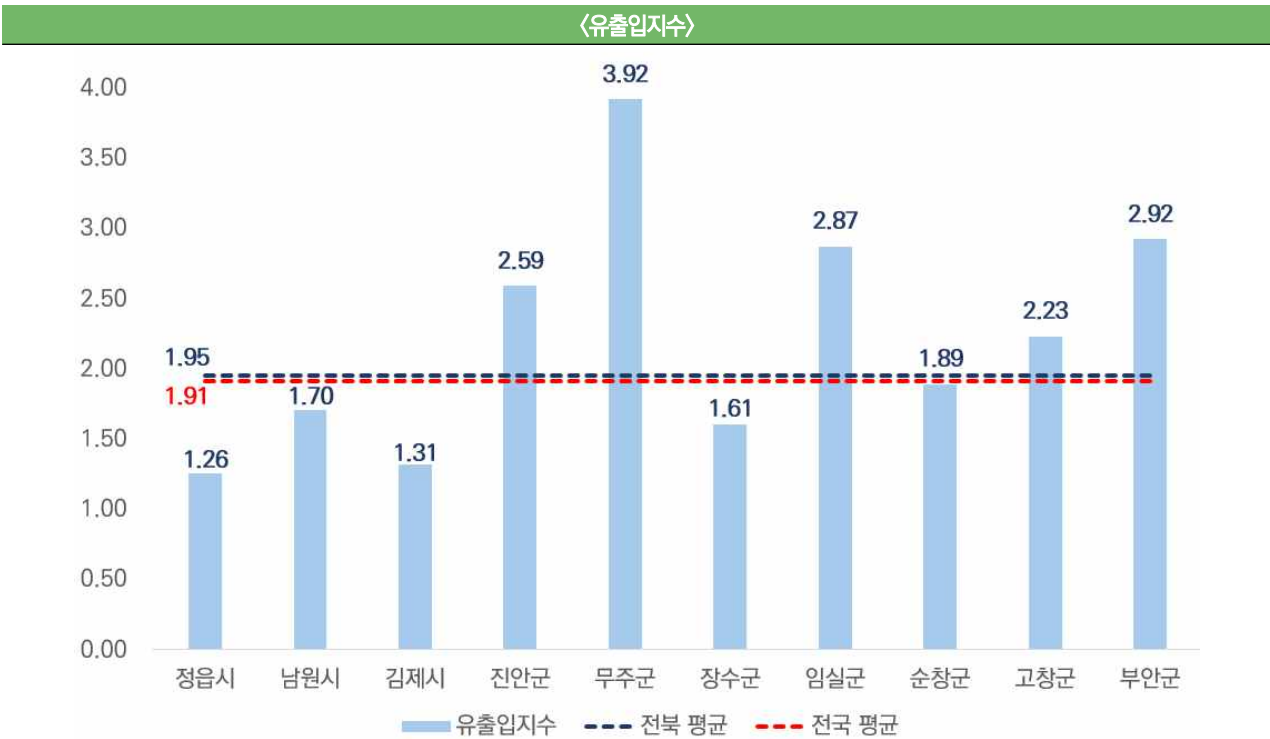
3. 유출입지수

- 지역에서 유출인구 대비 유입인구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유출입지수** 값은 **전국 1.91 전북이 1.95로 유사한 수준**
* 유출입지수 : 유입인구/유출인구 (체류인구가 얼마나 유입되고 유출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1보다 크면 유입 우위, 1보다 작으면 유출 우위로 지표 값이 높을수록 체류인구 유입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의미)
- 전북 유출입지수가 평균 값 이상인 시기는 1월, 4월, 5월, 8월, 10월, 11월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전국 평균보다 높은 시기는 1월, 5월, 10월 11월로 한정**
- 유출입지수가 전국 및 전북 평균 보다 높은 지역은 무주군 등 5개 군이며, 낮은 지역은 장수군과 3개 시 지역
 - **평균 상회 지역** : 무주군, 부안군, 임실군, 진안군, 고창군 순이며, 특히 무주군과 부안군은 연중 유출입지수가 전북 평균을 상회
 - **평균 하회 지역** : 남원시, 장수군, 김제시, 정읍시 순이며, 특히 김제시와 정읍시는 대부분의 월간 유출입지수가 전북 평균을 하회

〈유출입지수〉

구분	전국	전북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평균	1.91	1.95	1.26	1.70	1.31	2.59	3.92	1.61	2.87	1.89	2.23	2.92
1월	1.91	2.06	1.26	1.74	1.42	2.05	8.70	1.46	2.15	1.50	1.87	2.73
2월	1.51	1.47	0.94	1.25	1.13	1.57	5.26	0.91	1.53	1.16	1.31	1.96
3월	1.68	1.56	1.03	1.46	1.17	2.19	2.12	1.21	2.16	1.49	1.83	2.47
4월	1.83	1.98	1.17	1.72	1.29	3.58	2.14	1.45	3.19	1.79	3.10	2.82
5월	2.14	2.22	1.15	2.43	1.35	2.98	3.02	1.81	4.08	1.85	3.01	3.57
6월	1.95	1.90	1.10	1.57	1.34	2.57	3.35	1.57	2.89	1.91	2.24	3.27
7월	2.01	1.84	1.08	1.85	1.18	2.61	4.15	1.92	2.28	1.92	1.70	2.90
8월	2.24	2.04	1.14	2.00	1.17	2.97	5.17	2.23	2.34	2.12	1.87	3.56
9월	1.85	1.81	1.10	1.47	1.23	2.60	3.54	2.16	2.59	1.52	2.30	2.62
10월	2.32	2.53	1.66	1.98	1.84	3.21	3.44	2.03	5.49	2.49	3.01	3.73
11월	1.89	2.32	2.30	1.65	1.40	3.01	3.20	1.56	2.92	3.47	2.79	2.99
12월	1.46	1.43	0.99	1.13	1.16	1.45	3.69	0.90	2.18	1.10	1.43	2.15

출처 : 국가데이터처 자료 재정리



출처 : 국가데이터처 자료 재정리

Ⅲ. 전북 인구감소지역 체류인구, 어디에서 오고, 언제 집중되는가?

1. 체류인구 유입 경로

- 체류인구 중 전북 외 지역의 비중은 무주군(56.3%), 순창군(49.1%), 고창군(48.1%), 남원시(34.9%), 정읍시(27.1%) 순
- 체류인구의 전북 내외 비중 고려시 생활권 중심형, 도내 의존형, 광역 유입형으로 구분 가능
 - 생활권 중심형(1) : 김제시(체류인구 규모는 가장 크지만, 전북 내 비중이 93.4%로 생활권 중심의 체류인구 방문)
 - 도내 의존형(5) : 진안군, 장수군, 임실군(전북 외 비중 15% 내외), 정읍시, 부안군(전북 외 비중 25% 내외)
 - 광역 유입형(4) : 무주군, 순창군, 고창군, 남원시(전북 외 비중의 평균인 28.8% 상회 지역, 충청권과 광주전남권 유입 비중 높음)

〈시군별 체류인구 유입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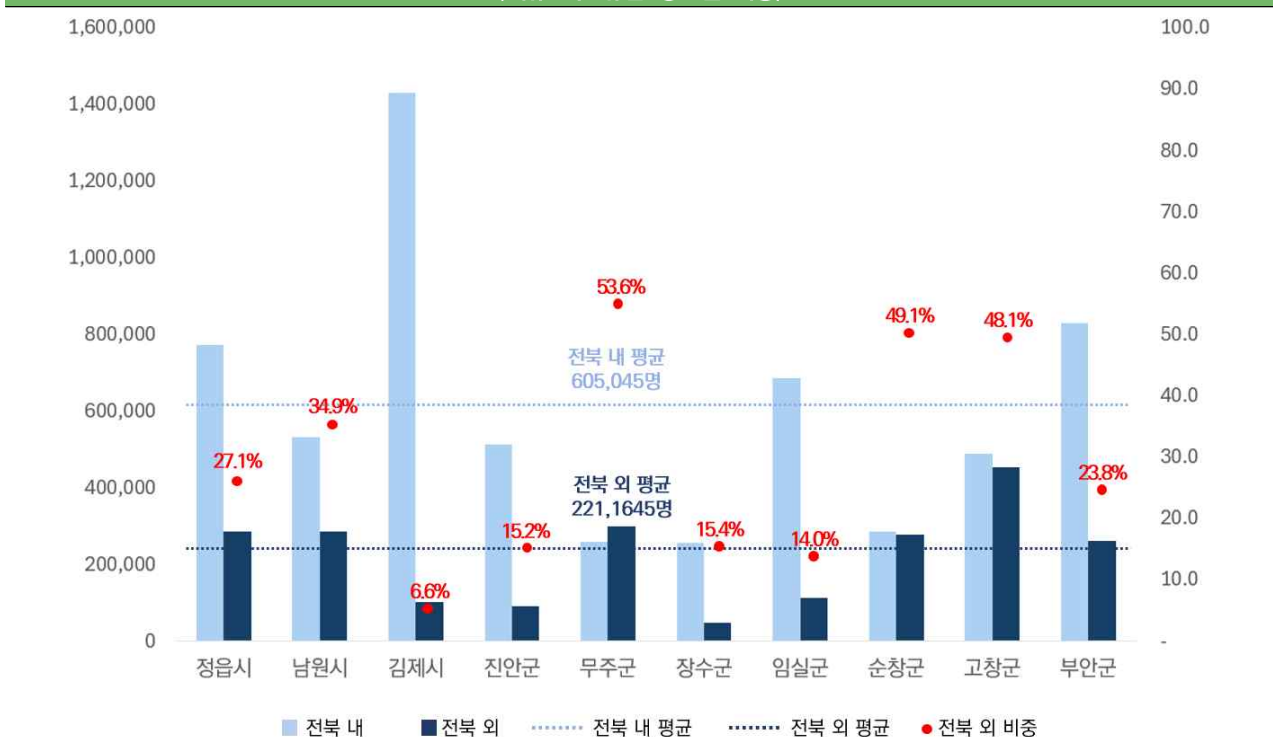
단위 : 명, %

구분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계	1,057,851	818,430	1,529,356	603,695	559,181	303,341	796,598	561,458	942,078	1,090,105
전북 내	771,365	532,787	1,428,816	511,985	259,588	256,758	684,817	285,583	488,571	830,181
전북 외	286,486	285,643	100,540	91,710	299,593	46,583	111,781	275,875	453,507	259,924
전북 내 비중	72.9	65.1	93.4	84.8	46.4	84.6	86.0	50.9	51.9	76.2
전북 외 비중	27.1	34.9	6.6	15.2	53.6	15.4	14.0	49.1	48.1	23.8

출처 : 국가데이터처 자료 재정리

주 : 유입경로 분석은 원자료의 시도·시군구명을 목적지, 유입 1~3순위 지역을 출발지로 간주하여 OD 흐름자료로 재구성한 뒤 산출함. 유입구는 목적지 기준 합계, 유출인구는 출발지 기준 합계이며, 유출입지수는 유입인구/유출인구로 산정함(단, 원자료가 유입 1~3순위 지역만 제공되므로 주요 체류 흐름 기준의 상대지표로 해석해야 함)

〈체류인구 유입 경로별 비중〉



출처 : 국가데이터처 자료 재정리

2. 체류인구 분산도

- 지역 내 연중 체류인구의 분산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변동계수 분석 결과 전북의 경우 23.0 수준
* 변동계수 : 월별 생활인구의 표준편차/평균 (값이 작을수록 연중 고르게 분포하고, 값이 클수록 특정 시기에 집중됨을 의미)
- 체류인구가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지역(전북 평균 이하)은 김제시이며, 임실군, 순창군, 무주군, 정읍시, 고창군 등은 특정 시기에 집중 심화
- 무주군을 제외한 9개 시군의 체류인구는 2월에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주군은 4월에 체류인구 최소
- 체류인구의 계절변동성의 경우 전북 10개 시군 평균은 129%이며, 임실군(358%)이 최고, 김제시(113%)가 최저
- 계절변동성 : (최대 월 체류인구-최소 월 체류인구)/최소 월 체류인구

〈시군별 체류인구 월별 현황〉

단위 : 명, 배

구분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계	3,187,872	3,166,485	2,974,474	1,733,050	2,510,195	904,320	2,032,155	1,510,645	3,038,916	3,505,688
월 평균	265,656	263,874	247,873	144,421	209,183	75,360	169,346	125,887	253,243	292,141
1월	246,457	244,492	247,707	104,979	420,695	63,611	116,532	91,542	196,881	257,086
2월	167,553	165,454	181,940	77,587	249,017	37,987	78,048	66,269	129,775	175,954
3월	214,341	222,359	218,651	119,714	116,068	56,717	126,704	98,361	199,876	249,925
4월	242,472	254,258	240,822	190,628	111,945	67,285	192,414	114,628	325,777	284,716
5월	275,765	393,212	279,699	176,482	177,327	89,184	259,750	133,419	367,678	378,862
6월	232,942	242,351	244,990	140,848	174,232	72,372	173,420	124,569	249,861	319,948
7월	215,529	272,441	218,664	137,690	210,388	84,067	128,341	117,995	186,379	274,301
8월	258,856	335,749	241,692	172,793	281,228	105,433	143,657	148,484	231,999	371,339
9월	221,235	219,376	223,351	142,156	177,226	94,305	148,263	97,376	251,494	248,239
10월	409,164	364,034	387,017	209,850	211,579	110,947	357,331	188,435	394,036	417,783
11월	501,333	278,349	275,664	177,839	181,472	77,642	181,909	250,737	339,915	311,462
12월	202,225	174,410	214,277	82,484	199,018	44,770	125,786	78,830	165,245	216,073
변동성	1.99	1.38	1.13	1.70	2.76	1.92	3.58	2.78	2.04	1.37

출처 : 국가데이터처 자료 재정리
주 : 음영은 각 시군의 월 평균 값 이상인 시기

〈시군별 체류인구 분산도〉

단위 : 명, %

구분	전북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표준편차 (a)	471,771	90,843	67,413	49,182	40,721	78,409	21,783	71,789	48,970	81,466	67,899
평균 (b)	2,046,983	265,656	263,874	247,873	144,421	209,183	75,360	169,346	125,887	253,243	292,141
변동계수 (a/b)	23.0	34.2	25.5	19.8	28.2	37.5	28.9	42.4	38.9	32.2	23.2

출처 : 국가데이터처 자료 재정리

IV. 체류인구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1. 체류인구 취약지역의 외부 인구 유입 확대

○ 체류인구지수와 유출입지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의 도내외 체류인구 유입 확대

- 목적형 방문수요 창출 : 정읍은 스포츠·메디컬, 남원은 지리산·웰니스, 김제는 농생명·경관, 장수는 고원 레저·교육 등 지역별 특화 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콘텐츠 개발
- 체류 기반 리워드 프로그램 운영 : 숙박·관광·음식점·카페 등 지역 소상공인과 연계하여 일정 시간 이상 체류하거나 일정 금액 이상 소비한 방문객에게 지역화폐·숙박 할인·소비 페이백 등 인센티브 제공
- 액티브 관계인구 확보 : 고향사랑기부제, 지역 프로그램 참여, 반복 방문 등을 연계하여 단순 방문객을 지속적으로 지역과 관계를 맺는 관계인구로 전환
- 방문객의 체류시간 연장 : 단일 관광지 중심의 방문에서 벗어나 관광·체험·식음·숙박을 연결하는 1박 2일 또는 2박 3일 체류형 프로그램 확대

2. 체류인구 유형별 맞춤형 대응

○ 광역 유입형(남원, 무주, 순창, 고창) : 전북 외 지역 유입 비중이 높은 강점을 적극 활용해 재방문과 장기체류 유도

- 체류형 거점 인프라 구축 : 위케이션센터, 공유오피스, 장기숙박시설, 지역 살아보기 공간 등 체류기간을 늘릴 수 있는 기반 확충
- 광역 연계형 관광 상품 개발 : 충청권·광주전남권 등 인접 광역 지자체와 연계한 대중교통 패스 및 광역 관광 코스 개발
- 권역별 맞춤형 마케팅 강화 : 유입지역 분석을 토대로 수도권·충청권·광주전남권 등 주요 시장별 콘텐츠와 홍보전략 차별화
- 재방문 인센티브 강화 : 1회성 관광객에게 집중하기보다 2회·3회 방문객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하는 누적형 리워드 도입
- 지역살아보기 프로그램 확대 : 관광 중심의 단기 방문에서 일·휴식·교육·문화활동이 결합된 중장기 체류로 전환

○ 도내 의존형 및 생활권 중심형(정읍, 김제, 진안, 장수, 임실, 부안) : 전주권 및 인근 거점 도시와의 연계를 강화해 가까운 지역에서 자주 찾는 생활형 체류인구 확대와 도외 체류인구 방문 수요 창출

- 전주권 연계 생활관광 확대 : 전주권 주민을 대상으로 주말·야간에 이용할 수 있는 관광·문화·체험 프로그램 개발
- 야간·주말 로컬경제 활성화 : 인근 도시민들이 야간과 주말에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 활성화(지역예술인 야간 콘서트, 청년 플리마켓, 주말 스포츠 대회 등)
- 지역거점 명소화 : 지역에 기 조성된 인구유입 거점시설에 기능보완을 통한 대표 랜드마크화(대한민국 치즈문화 수도, K-발효 메카, 사계절 산림관광 거점 등)
- 생활권 공동마케팅 : 개별 시군 단위 홍보에서 벗어나 전주권 및 인접 시군과 공동 관광패스·통합 홍보체계 구축
- 근거리 반복방문 유도 : 1회 관광보다 월 1회, 계절별 방문 등 반복 방문을 유도하는 정기 프로그램 운영
- 체류인구 기업·기관 회원제 : 도외 체류인구 확보를 위해 개인 관광객 중심에서 기업·학교·공공기관을 체류인구 공급원으로 확보(기업워크숍, 공공기관 연수, 연구기관 세미나, 직무교육 등)

3. 연중 체류인구 확보 (무주, 임실, 순창 등)

○ 특정 시기에만 체류인구가 급증하고 급감하는 계절성 한계 극복을 통한 체류인구의 연중 분산

- 비수기 특화 축제 및 이벤트 : 체류인구가 감소하는 2월 등 비수기에 실내문화행사, 겨울축제,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

- 사계절 체류공간 조성 : 봄·가을 야외활동과 여름·겨울 실내활동이 가능하도록 사계절 활용이 가능한 복합 체류공간 조성(자연친화형 야외활동+타깃형 체험·휴양활동)
- 계절별 체류상품 개발 : 계절별 자연·문화·체험자원을 결합한 사계절 체류 프로그램 운영
- 비수기 집중 인센티브 : 비수기 숙박 및 지역소비에 대한 할인·페이백을 강화하여 성수기와 비수기의 격차 완화

4. 체류인구의 '유입'에서 '소비·재방문'까지 정책영역 확대

- 체류인구의 방문객 수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얼마나 오래 머물고, 얼마나 소비하며, 다시 방문하는가를 핵심 성과로 관리
 - 체류시간 관리 : 주요 관광지별 평균 체류시간을 분석하고 체류시간을 늘릴 수 있는 연계 콘텐츠 개발
 - 지역소비 연계 : 숙박·음식·쇼핑·체험 등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는 소비 인센티브 확대
 - 재방문 관리 : 방문 횟수와 방문 간격을 분석하여 반복방문 가능성이 높은 이용자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지역상권 연계 : 체류인구가 집중되는 주요 거점과 전통시장·골목상권·지역기업을 연결하여 체류인구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확대
 - 성과지표 전환 : 단순 체류인구 규모뿐만 아니라 체류시간, 소비액, 재방문율, 지역 내 이동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
- 체류인구(방문객→반복 방문객) → 관계인구 → 장기체류자 → 정주 가능인구'로 이어지는 전환체계 구축
 - 1단계 방문 : 관광·축제·스포츠·문화 등을 통한 신규 방문객 확보
 - 2단계 재방문 : 리워드와 회원제 등을 활용한 반복방문 유도
 - 3단계 관계 형성 : 고향사랑기부, 지역 프로그램, 자원봉사, 지역 커뮤니티 참여 등과 연계
 - 4단계 장기체류 : 위케이션·지역살이·교육·전자훈련 등으로 체류기간 확대
 - 5단계 정착 연계 : 귀농·귀촌, 청년창업, 일자리 등 정주정책과 연계하여 지역 정착 가능성 확대

5. 실증 데이터 기반의 생활인구 대응 사업 추진 (인구감소지역)

- 공간 단위 세분화 분석 : 시·군 평균 값에 가려진 지역별 체류인구 특성 파악을 위해 읍·면·동 단위 및 주요 관광지별 빅데이터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주요 거점별 모니터링 : 관광지·축제장·상권·교통거점별 체류인구 변화 분석
- 정책사업 사전·사후 분석 :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주요 사업 시행 전후 체류인구 변화와 경제적 효과를 비교하여 사업의 실효성 검증
- 데이터 기반 예산배분 : 체류인구 증가 가능성, 지역경제 파급효과, 사업성과 등을 고려하여 관련 예산의 우선순위 설정
- 생활인구 등록제 도입 기반 마련 : 체류시간·체류빈도 등 실증 데이터로 통근·통학, 출향·연고 등 반복 체류자를 식별하고, '생활인구 등록제' 등 소멸위기지역 재도약을 위한 지원 강화 관련 국정과제에 맞추어 측정·분석 중심에서 등록·관리 체계로 전환할 준비 필요

Vol. 350
ISSUE BRIEFING
JTHINK



발행인 최 백 렬 발행처 전북연구원

※이 이슈브리핑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 전북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난 호 이슈브리핑을 홈페이지(www.jthink.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